

## 세계적 아티스트 신영옥·백건우 광주공연 잇따라 취소...주최측 "관객 없어 불가피"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의 광주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을 이유로 공연 하루 전날 전격 취소돼 놀라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말 새로운 음반 '리브 듀엣'을 발매한 뒤 서울을 비롯, 거제 등 전국 12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해 왔다. 신씨는 자신의 이번 파날레 무대를 2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한 대구지역 기획사 싸이즈엔터테인먼트는 공연 전날까지 티켓 판매량이 200여장에 그쳐 22일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지역 클래식 음악계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가 오랜 기간 클래식 공연 문화의 불모지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공연들이 타 지역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연 예정이었던 백건우 리사이틀 역시 인구 20만명의 경남 양산시를 비롯, 7개 도시에서 열렸지만 광주공연은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관을 취소했다.

또 지난해 광주를 찾았던 세계적인 클래식 단체인 '사계(四季)'의 대명사 꼽히는 아무지치 실내악단 공연 관객수는 초대권 관객을 포함, 830여명에 그쳤고 다른 지역에서 성황을 이뤘던 장한나 독주회도 유료관객은

700~800석에 불과했다. 또 올 초 신년음악회를 가진 빈 소년합창단도 인근 전주에서는 공연을 가졌지만 광주는 건너뛰었다.

신영옥 콘서트 공연취소를 두고 공연계 안팎에서는 지역사정에 어두운 외지기획사가 홍보에서 어려움을 겪은 데다 티켓 판매마저 부진하자 '공연 취소'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공연 취소가 앞으로 미칠 악영향

이다. '신영옥 공연 취소'는 광주 클래식 공연문화의 적 박함을 말하는 꼬리표로 따라 다녀 향후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항의를 하던 일부 예매자들도 티켓 판매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좋은 공연에 관객이 없다면 앞으로 좋은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 위길환 실장은 "공연취소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공연 유료관람운동 등을 전개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문화교류재단 김상운 상임이사는 "한국의 문화수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문화지력, 광주시민들의 문화구미력을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모든 국제선 여객기 액체류 반입 금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노선 항공편에 대해 기내 액체류 반입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국제선 탑승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및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운항편에 한해 액체류 반입을 금지해왔다. /연합뉴스

## '문화수도' 부끄럽다

##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개인파산' 브로커 고용

### 500건 10억대 수입...광주지검 영장

고법원장을 지낸 변호사가 대부업체와 연계된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를 통해 수백건의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해 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4일 전문 브로커들을 고용,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를 모집한 뒤 일정 부분의 소개료를 브로커들에게 준 변호사 이모(67)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광주지

법원장 및 부산고법원장을 지냈으며, 타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10여년 전부터 광주에서 활동해 왔다.

검찰은 또 이씨의 사무장인 김모(41)씨와 개인파산·회생 전문 브로커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조직인 S네트워드를 통해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0여 건의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10억원대의 돈을 수입료로 챙겨 이를 브로커와 나눠 쓴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브로커 조직인 대부업체로 등록된 S네트워크 관계자들을 사무장 및 변호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이들이 모집해 온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수입료 중 일정부분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들은 광주와 전남·북 일대 농촌과 도서지역을 돌며 개인파산·회생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개인파산 신청 등을 부추겨 건당 수입료 250만원 상당을 받고 파산신청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이들은 신청자들에게 수입료를 '2부 이자'로 대출도 해줬다. 검찰은 법원이 파산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와 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면책 허가율을 99%까지 올리며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자 이 같은 전문 브로커들이 법조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호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변호사로서 개인파산 사건수임과 관련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 외에 사건 유지 수당을 주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액의 수입료를 준 점이 인정되고 또 이에 대한 도가 지나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더구나 변호사를 건 브로커들은 개인파산·회생을 활성화시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5년 1천231 명에서 지난해 7천 명을 넘어서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녹차와 자스민이 만나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차시험장 연구원들이 24일 2천~4천배로 희석한 천연 자스민산액을 녹차잎에 뿌리고 있다. 농업기술원 박정현 박사팀이 개발한 이 신기술은 혈압 및 중성지방 저하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인 '가바(GABA)성분'을 40% 기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임종인·이계안 이어 최재천의원도 동참 與, 연쇄 탈당 본격화

열린우리당 임종인(22일), 이계안 의원(23일)에 이어 최재천 의원도 24일 탈당 행렬에 동참하면서 29일 중앙위원회의 이전 대량 탈당 사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정배 의원과 가까운 최 의원의 탈당으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초·재선 의원인 제종길, 안민석, 김재윤, 이상경, 이종걸, 정성호 의원 등의 후속

탈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량 탈당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열린우리당 비대위는 29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서의 원만한 합의의 도출을 위해 중앙위원들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은 중앙위원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신당과 중앙위원들은 중앙위원회의 자체에 대한 비토 입장을 보이고 있어 29일 중앙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

후원기업 장학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mbu.ac.kr  
세종대 앞서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